


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 
경제관계장관회의 겸  
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 
25-9-2  
(공개)

 역동경제로  
서민·중산층 시대 구현!

#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

2025. 3. 12.

관 계 부 처 합 동

## I. 추진배경

- **[반도체 산업 여건]** 기술경쟁 격화 → 핵심인력의 집중적 연구개발이 필수적이나 경직적 근로시간 규제 하에서 한계 노정

\* 500여개 기업 대상 조사결과, 기업 연구부서의 75.8%가 주 52시간제 시행 후 연구개발 성과가 줄었다고 응답  
(대한상의·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, 주 52시간 제도가 기업 연구개발에 미치는 영향)

- 특히, 최근 美 트럼프 정부의 반도체법 폐지 논란, 중국의 기술 추월 등 반도체 산업 위기요인 확산

\* 국내 전문가 39명 대상 설문결과, 지난해 한국 반도체 분야 기술 기초 역량이 모든 분야에서 중국보다 낮게 나타남  
(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, 3개 게임체인저 분야 기술수준 심층분석 브리프)

- **[업계 애로]** 엄격한 요건 하에 제한적으로 활용 가능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\*를 통해 핵심인력의 연구개발 지원 중(‘24년 32건)

\* 연구개발 업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 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 가능

- 그러나, 현행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은 짧은 인가 기간 등 반도체 연구개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

### ☑ 현장의 목소리

- “연구개발자의 집중 근무는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지만 원칙적으로 특별연장근로는 3개월까지만 운영가능해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음” (기업)
- “연장 신청 시에는 연장 필요성, 연장 기간 및 근로시간의 적정성, 대상 근로자의 적정성, 건강 보호 조치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신하기 어려움” (기업)
- “연구개발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 완화 및 인가기간 6개월 이상으로 확대 요구” (경제단체)

- ⇒ 현행과 별도의 「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지침」 제정, 「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(고시)」 개정

## Ⅱ.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

### 1. [인가기간] 1회당 인가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 신설

- 1회당 인가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 신설, 필요에 따라 현행 또는 특례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 확대

❶ (현행) 1회당 최대 3개월 + 추가 연장 가능

❷ (특례) 1회당 최대 6개월 + 추가 연장 가능(6개월)

### 2. [인가시간] 6개월 인가 시 기간별 주당 최대 인가시간 차등화

- 1회당 6개월 인가 시 첫 3개월 주당 최대 64시간, 추가 3개월 주당 최대 60시간

*	1회 3개월	재심사	연장 3개월	또는	1회 6개월		선택 가능
	주 64시간		주 64시간		주 64시간	주 60시간	

### 3. [근로자 건강보호 조치] 특례 활용 시 건강검진 의무 신설

- 특례 활용 시 사업주 사전통보 → 인가기간 중 건강검진 실시 의무 신설 <고시 개정사항>

### 4. [인가기준] 재심사 기준 간소화

- 재심사 기준은 완화하되, 핵심 요건(인가사유, 인가기간·시간, 건강보호조치 등)은 철저히 심사
  - (연장 필요성) 연구개발 업무(통상적 유지·보수 제외) 승인
  - (대상자 적정성) 대상 업무에 필요한 근로자인지 확인  
(연구·연구지원, 불가피 시 생산인력 포함)

### 5. [제도 오·남용 방지] 온라인 불법 신고센터 운영

- 「가칭 특별연장근로 신고센터」 운영 → 근로자 권익 보호 및 법 위반 사업주 대상 시정